

2013년 8월  
석사학위논문

택견 품세에 나타난 인체 조각의  
역동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자 작품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 현 준

택견 품세에 나타난 인체 조각의  
역동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자 작품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ynamic Expressions of Human Body Sculpture  
in Taekgyeon Patterns

2013년 8월 23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 현 준

택견 품세에 나타난 인체 조각의  
역동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자 작품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상 호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 술 학 과

조 현 준

# 조현준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인 경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의 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상 호 (인)

2013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IV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

## 제 2 장 구상조각의 역동적 인체표현 고찰

제 1 절 조각의 역동적 표현 의의 ..... 3  
1. 역동적 움직임의 의미 ..... 3  
2. 역동적 움직임에 따른 조형개념 ..... 5  
제 2 절 미술사적 근거에 따른 역동적 인체표현 고찰 ..... 8  
1. 고대와 이집트조각 ..... 8  
2. 그리스와 로마조각 ..... 11  
3. 중세와 르네상스조각 ..... 19  
4. 바로크에서 근대조각 ..... 24  
5. 현대조각 ..... 27

## 제 3 장 연구자 작품의 역동성 분석

제 1 절 택견 동세의 작품표현의 의의 및 택견 동세 연구  
..... 31  
1. 택견 동세의 작품 표현 의의 ..... 31

2. 택견 동세의 구성 .....	32
3. 택견의 움직임 및 특징 .....	33
제 2 절 연구자 작품 분석 .....	35

## 제 4 장 결 론

도판목차 .....	50
참고문헌 .....	51

## 연구자의 작품목록

- [작품1] 조현준<허벅밟고 내지르기>, FRP,혼합재료, 29×26×41cm, 2012 ..... 6
- [작품2] 조현준<막음다리>, FRP,혼합재료, 17×21×37cm, 2012 ..... 35
- [작품3] 조현준<숫구쳐 결치기>, FRP,혼합재료, 25×28×44cm, 2012 ..... 36
- [작품4] 조현준<발노을대기>, FRP,혼합재료, 18×23×32cm, 2012 ..... 38
- [작품5] 조현준<안낙걸이 칼잡이>, FRP,혼합재료, 25×13×34cm, 2012 ..... 39
- [작품6] 조현준<하단 안짱걸이>, FRP,혼합재료, 27×14×21cm, 2012 ..... 40
- [작품7] 조현준<결치기>, FRP,혼합재료, 25×11×37cm, 2012 ..... 41
- [작품8] 조현준<물구나무쌍발차기>, FRP,혼합재료, 32×20×29cm, 2012 ..... 42
- [작품9] 조현준<본때 - 허벅 찢기>, FRP,혼합재료, 25×14×31cm, 2012 ..... 43
- [작품10] 조현준<덜미잡이회목치기>, FRP,혼합재료, 24×19×33cm, 2012 ..... 44
- [작품11] 조현준<각시탈-건주기>, FRP,혼합재료, 51×36×108cm, 2012 ..... 45
- [작품12] 조현준<故송덕기-활개짓>, FRP,혼합재료, 65×50×109cm, 2012 ..... 46

# ABSTRACT

## A Study on the Dynamic Expressions of Human Body Sculpture in Taekgyeon Patterns

Cho, Hyun jun  
Advisor : Prof. Park, Sang-Ho Ph.-D  
Department of ar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sculptors has continually had interest in dynamic movements and beauty of human body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The representative area among all areas definitely having the dynamic expressions of sculptures is human body sculpture. This plastics expression of human body sculpture include not only the external description of human body but also the internality of the sculptor's thoughts or social phenomena.

The dynamism of human body sculpture is a movement showing the powerful, active and dynamic description of human body and also an external expression showing the inside power by sculptural expressions of motions showing effectively between tension and relaxation.

Since the prehistoric age, the form of human body has been considered as an expressive object in the trend of arts. At that time, the human body expressed the fundamental origin of human beings. After the expressions of human sculptures in the prehistoric age, from the Egyptian sculptures, the Greek sculptures, the Roman



sculptures, medieval sculptures, the Renaissance sculptures, the Baroque sculptures, and the modern sculptures finally to the contemporary sculptures, the gradual development of human sculptural expressions has been applied to the monumental characteristics of sculptures such as the beauty of proportion, solid description, sense of volume in the form, abstract, openwork and dynamic motions and also been continued to form various spectrums.

Regarding the human body sculptures produced with the simple motions, most of them had been shown the natural, soft, strong and minute description, or omitted these and expressed only the feeling of monotonous motions. In contrast to human sculptural expressions having the simple motions, we can more strongly feel the vitality of ones having the dynamic motions. These expressions make viewers feel strong on the image of sculptures with dynamic motions and maximize the vitality by natural movements than ones of immovable motions.

In this study, focused on my artworks for the degree in the graduate school, to discuss the study on dynamic human body sculptures systematically in Chapter 2, I discussed the history of sculpture and the expressions of conceptual formative arts for the study on dynamic expressions of human body by conceptual sculptures and studied the history of sculpture from the origin of sculpture to the progress of dynamic sculptural expressions at present. Then, in Chapter 3, I analyzed the artworks of other researchers for my study on the dynamic formative artworks. First, I discussed the purpose, meaning and techniques to express the motions of Taekgyeon and the difference among other usual artworks of motions. Second, I discussed the bases of artworks related to the motions of Taekgyeon, in other words, motions, shapes and constituent types of Taekgyeon and studied their characteristics. Third, as I discussed the artworks of researchers expressed the motions of Taekgyeon and suggested how they expressed them by dynamic sculptures, I studied the difference by dynamic techniques of sculptures with the motions of Taekgyeon that is, the main subject of my study.

The human body in sculpture is not simply a biological medium but a basin putting in the meaning and concepts. Like this, the dynamic movements of my artworks are motions of Taekgyeon, our traditional martial arts. Our nation has various great cultures. Among them, as I thought that Taekgyeon is the most

national and representative cultural asset to our nation, so I wanted to show the limitation of human body expressions in my artworks of Taekgyeon and had the producing purpose to show the vitality of human body sculptures, reinterpretation of Taekgyeon for viewers, which is our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traditional thought in Taekgyeon.

Taekgyeon is our proud legitimate and traditional martial arts. The contents of my sculptures related to the thoughts of Taekgyeon are poetical, outgoing and strong spirits of our nation. As the sculptural artworks under the theme of Taekgyeon protect our nation and show our strongness, these express the meaning that there is our pride in them.

Taekgyeon improves the effectiveness of our life like dancing and makes people gain the physical energy more than average men. In addition, it has the meaning to maximize mentally,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and activates effectively. I concretely formulated the dynamic movements by motions and tunes of Taekgyeon.

I had the desire to capture the dramatic moments, make the overall expressions of artworks be detailed and express the sculptural form by maximizing the dynamic images of human body. In addition, Taekgyeon is the most appropriate medium to our unique emotion under the history of our nation and the appropriate mean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xpressions of sculptor's artworks by the vitality and spirit of Taekgyeon. Also, the dynamic motions of Taekgyeon itself are met with my sculptural works and therefore I can stress the dynamic vitality and emotional expressions in Taekgyeon. These expressions are the power of inside and outside and expressions of dynamic emotion which all people can have.

As a result of studying on the dynamic expressions of human body sculptures, I found that the possibility to activate the dynamic expressions of human body sculptures more and to find the dynamic expressions of human body in formative arts was infinite.

By these artworks of human body sculptures, I was deeply impressed in the conceptual expressions of human body and furthermore I found the possibility in various attempts and creative expressions of human body sculptures. I expect that the studies on the dynamic expressions of human body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n future.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역동적 움직임과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은 조각가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왔던 표현의 방식 중 하나였다. 조각의 역동적인 표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체 조각이다. 이러한 인체 조각의 조형적 표현은 단순히 인체의 외면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 작가의 사상이나 사회적 현상들의 내면성까지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미술사조 속에서 인체의 모습이 표현의 대상으로 모색된 것은 선사시대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때의 인체 조각 표현은 인간의 본질적인 기원에 대한 표현양상을 띄었다. 선사시대의 인체 조각 이후로 이집트 조각, 그리스 조각, 로마 조각, 중세 조각, 르네상스 조각, 바로크 조각, 근대 조각을 거쳐 현대 조각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인 인체 조각 표현은 조각에서 표현되는 비례의 아름다움, 입체적인 묘사, 형태의 양감, 추상화, 투조, 역동적인 동세 등, 조각 작품의 기념비적 특성으로 발전·적용되었고 수많은 스펙트럼을 형성하여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인체 표현 조각에서 사실적 인체 표현과 역동적 인체표현의 특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먼저 인체 조각의 역동적 표현에 대한 선행 논문을 분석하여 살펴보면, 조각 작품의 역동적 표현과 관련된 영남대학교의 대학원 석사 논문인 고수영(2002)의 「역동적 인체 표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연구자 본인의 인체 조각과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 조각가 움베르토 보치오니의 인체 조각의 공간감과 역동성을 비교분석한 사례연구이다.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인 황윤경(2005)의 「인체조각의 표현에 관한 연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체 조각의 표현에 관한 연구이다.

본고는 전반적인 인체 조각 역사의 변천과정 속에 나타난 인체조각의 역동성을 고찰하고, 택견의 동세를 차용하여 역동성을 표현한 본 연구자의 작품과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작가들의 역동적인 조각표현들과 본 연구자의 택견 동세에 반영된 역동적인 조각 표현의 차별성을 발견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역동적 인체 조각 연구의 체계적인 논의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구상조각의 역동적 인체 표현 연구로 조각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의 조각의 역동적 표현 진행과정까지 조각의 역사를 연구하며, 역사적 인체조각 작품들의 표현방법들 중에서 역동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구상조형의 표현들을 논의하고, 분석한다.

제3장은 본 연구자의 역동적인 조형작품의 연구의 목적 해결의 장으로, 연구자의 작품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택견 동세의 작품표현의 목적과 의의, 표현기법들에 대해 일반적인 동세의 작품들과의 차별성에 대해 논의 한다

둘째, 택견의 동세 작품의 기본이 되는 택견의 동세, 형, 구성 유형에 대해 논의하여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택견의 동세를 살린 연구자의 작품들에 대해 논의하고 구상작품 역동적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역동적인 조각으로 표현 하였는지 제시함으로써 본고의 큰 주제인 택견의 동세를 활용한 조형작품에 대해 역동적인 표현기법을 통한 차별성을 고찰해본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작품은 본 연구자의 대학원 청구전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문헌정리를 통해 인체조형작품의 동세 표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택견 동세를 차용하여 조형화시킨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 제 2 장 구상조각의 역동적 인체표현 고찰

### 제 1 절 조각의 역동적 표현 의의

#### 1) 역동적 움직임의 의미

역동성이란 국어국립원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신어’ (新語)에 수록된 단어로써 ‘힘차고 활발한 움직임’ 을 뜻한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인체조각 작품에 적용시키면, ‘동세에 따른 역동적인 인체 조각’ 이 되는데 조각에서 역동적인 인체를 표현한 인간의 동세는, 단조로운 동세보다 효과적으로 작품의 의도를 보여주는 외적 표현인 것이다. 역동적인 형태를 표현한 인체 조각 작품에서는 인체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함께 인체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고, 형태가 단순화 되어있는 인체조각이 아니라 역동적인 표현에 근거하여 나타난 표현 영향을 많이 지니고 있다. 또한 인체조각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 작가의 의식이 작품 주제를 선정하고 보여주는데 있어서 주제에 적합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움직임 그 자체의 이미지를 조형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동세가 단순한 형태로 제작 되어있는 인체 조각을 보게 되면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 강한 느낌, 세세한 묘사 아니면 생략하고 단조로운 동세의 느낌만을 살린 작품들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움직임이 적은 인체조각 표현과 달리 역동적인 동세의 인체조각 표현은 작품에서 표출되는 생명력이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 보는 이로 하여금 역동적인 동세의 조각 작품이 주는 이미지가 강하고 부동적인 동세의 작품들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생명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역동적인 동세 표현의 인체 조각 작품에도 그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주제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적인 인체 표현에서 오는 효과와 역동적인 인체 동세 표현에서 오는 효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 작품의 주제가 된 역동적인 움직임의 동세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전승되어 오면서 역동적 정서를 함양하는데 뒷받침하고 있는 전통무예 택견<sup>1)</sup>이다. 이

1) 우리나라 고유의 맨손무예. 여러 문헌에는 수박(手搏)·수박희(手搏戲) 등의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국어사전>>에는 “태권”으로 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해석은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경기로 각희(脚戲)”라고

택견을 인체조각 작품으로 조형화함으로써 인체의 외면적인 역동적 움직임과 작품 내면 속의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무예인 택견을 통해 정신수련과 신체적 단련을 하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인체의 생동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택견을 역동적인 조각으로 표현함으로써, 택견의 동작에 의한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조형화되어 인간의 심신(心身)이 강해지는 에너지를 나타내고 우리나라 무예의 전통적인 정서와 사상을 느끼는데 의미부여를 한 것이다.

택견의 마주메기기<sup>2)</sup> 모습에서 “익크!~익크!!” 라고 외치는 택견의 절도 있는 기합 소리, 서로 자신의 기세를 상승시키고 상대의 기를 제압하려는 모습, 장단을 맞추며 노래하듯이 흥겹게 하여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기운 상승을 돕는 모습, 큰 소리로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켜 신호와 구령의 일종으로 대치한 모습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억눌린 마음을 트이도록 하는 힘이 있다. 이것은 택견을 수련하였던 조상들이 개인의 가슴 속에 품었던 정서였으며, 그 짧고 굵은 기합과 시원하게 들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결국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이고, 잡념이 없는 인체의 외면과 내면에 대한 새로운 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택견의 품밟기<sup>3)</sup>는 결국 우리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의 반영이고, 그 자체로 승화된 상징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내면 깊이 갖추고 있는 역동적 신명<sup>4)</sup>이 택견의 품밟기를 통해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택견 동세의 역동적인 인체 조각 표현이 움직임이 적은 모습의 인체 조각표현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택견의 역동적인 동세표현을 본 연구자의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다. 주로 발로 차거나 걸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내지만 상대방 얼굴을 차는 것으로도 이기게 된다. 손질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민속경기놀이로 전승되어왔으며 격렬한 투기임에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독특한 경기방법도 있다. 한편 인명을 살상하는 무술적 기법도 함께 전해온다.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생활체육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11월 28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용복 서, 1995, 『택견』, 대원사, p.7. 인용

- 2) 마주메기기는 두 사람이 서로 똑바로 향하여 공방의 연습을 하는 것인데 다른 무술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련(對鍊)이라 부른다. 택견의 마주메기기는 기초적인 기본기술과 겨루기 혹은 경기, 격투와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한다. 이용복 서, 1995, 『택견』, 대원사, p.135. 인용
- 3) 품(品)자 형태, 즉 삼각형의 보법(step)을 품밟기라 한다. 극히 제한된 중심 이동의 공간과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의 통제 아래 가장 효과적인 공방을 할 수 있는 합목적성을 가진 기법의 하나이다. 이용복 서, 1995, 『택견』, 대원사, p.54. 인용
- 4) 신지킴에 따르는 양분되거나 도취된 정신심리상태.

## 2) 역동적 움직임에 따른 조형개념

조형적인 측면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이란 인체조각의 면모에서 작품 내면을 나타내고 있는 형상이 인체가 표현하고 있는 동세를 통해 내·외면에 비춰져 힘이 보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인체의 역동적인 동세는 조각으로 하여금 입체적인 표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생명력을 표출시킨다.

동세는 역동적인 형태의 동세와 부동적이거나 움직임이 적은 형태의 동세로 나눌 수 있는데, 움직임이 적고 부동적인 동세 표현의 인체 조각은 작품이 의미하고 있는 표현과 그 특성이 소극적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역동적인 동세 표현의 인체 조각은 작품의 의미와 특색이 잘 드러나 있어 작품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강렬한 교감을 형성하게 한다. 이처럼 조형적인 측면에서 인체조각은 동세 표현이 점진적으로 적극성을 띄게 되었으며 그 움직임의 형태를 가진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그 작품에 대한 목적과 상황이 잘 드러난다. 인체 조각에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그 의미가 더욱 확실히 전달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역동적인 동세 표현으로 조형화한 인체조각 작품들은 택견의 동작에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정서와 내면의 힘을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택견은 우리나라의 민족 무예로서 본디 무예가 가지는 특색을 갖췄기 때문에 인해 역동적인 동세의 인체 조각 작품으로 승화하였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보이는 택견의 역동적인 동세표현은 동작 하나하나의 움직임에서 그 의미가 뚜렷하게 작품을 보는 감상자에게 전달된다.

이런 택견의 움직임은 마치 전통적인 춤과 비슷한 율동과 리듬감을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 A 라우어는 그의 저서 『조형의 원리』(1996)에서

역동적인 춤의 동세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움직임의 세상으로서 인간의 삶에 거의 모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인다. 우리 사람들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수면을 취할 때조차 몸을 움직인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멈출 수 있다고 하여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 같은 입체적인 예술품은 어느 면에서나 움직이면서 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5)</sup>

5) 데이비드 A. 라우어/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애경, 1996, p.106. 인용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수영(2002)은

입체적인 조각 작품은 모든 방면에서 움직임을 통해 바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모습은 계속해서 변화되며, 형태 역시 계속 다른 시각적인 이해 속에서 보여 진다. 만약에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바라본다면 그 시각적 경험은 유동적일 것이다.<sup>6)</sup>

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자의 인체조각에서 나타난 역동성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춤의 율동감을 지니되 택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연성과 힘이 융합된 역동적 표현이다.



[작품1] 조현준<허벅뵈고 내지르기>, FRP, 혼합재료  
29 × 26 × 41cm, 2012

[작품1]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표현을 보면 움직임이 강한 동작과 택견꾼의 택견에서 나타는 역동적 동세를 순간적인 묘사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 인체에서 나타나

6) 고수영, 『역동적(DYNAMIC) 인체 표현에 관한 조각 작품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논문, 2002, p.20.참조



는 동세의 표현과 작품의 양감을 통해서 역동적 움직임을 찾으려 한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인체를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택견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동작의 움직임을 묘사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인체의 중심을 축으로 하여 균형감이 잘 잡히면서도 긴장감도 발산하여 작품의 내면에서 힘이 느껴지며, 강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시키고 있다.

[작품1]<허벅밟고 내지르기>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은 상대의 다가오는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표현하여 택견의 리듬감과 함께 인체의 표정에서 오는 긴장감까지 느끼게 한다. 택견꾼의 복장인 한복의 곡선은 인체의 강렬한 움직임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탈바꿈시키는 느낌을 주게 하였다.

본 연구자는 택견의 동세를 통해 인체의 역동적인 표현 속에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조형적인 동세의 힘과 인체가 가진 내면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표현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조형적인 면에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인체조각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미술사적 근거에 따른 역동적 인체표현 고찰

### 1. 고대와 이집트 조각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역동적 움직임과 아름다움은 조각가에게 끊임없이 표현의 대상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표현은 시대별과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서양조각은 동적인 인체조각이 주류를 이루는데 비해 동양조각은 정적인 인체조각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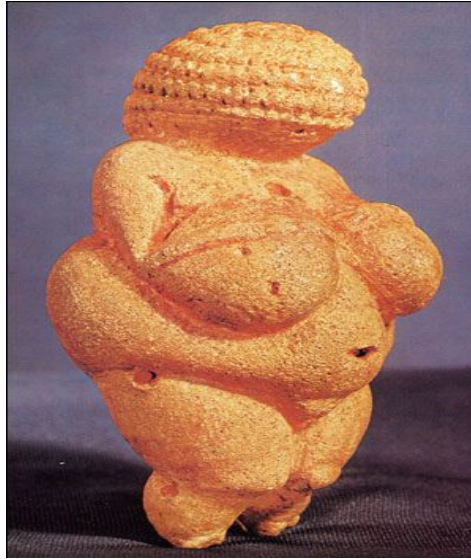
고대 시대에 자연물의 모습 속에 감춰져있는 수학적 비밀을 알아보고자 했던 예술가들은 자연의 척도를 인체 비례 안에서 고찰함으로써 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대 예술에서 독자적인 조각 작품에 대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각 작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만5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의해 조각된 작품들이다. 고대인들은 생존을 바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본질적인 관념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일에 전념함으로써 그들의 본질적인 것들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했다. 이 시대의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속에서 보이지 않는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키는 도구로서 주위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동물의 뼈와 뼈 그리고 점토 등으로 표현했다.<sup>7)</sup> 고대의 원시 시대 인체 조각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의 개념과 다르다. 원시시대의 인체조각은 미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원시시대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각 작품들 가운데 가장 초기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Venus of Willendorf) [도판1]<sup>8)</sup>가 보여주는 인체의 형상은 구근 모양을 한 윤곽과 묵직하게 달린 가슴과 부푼 배의 생생한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족자손의 번창을 가져오는 주술적 힘을 지닌 본능적인 표현성을 나타내는 애니미즘(Animism)<sup>9)</sup>속에서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7) E.H.콤포브리치, 최민 역, 『서양미술사』, 열화당, 1978, p.55. 인용

8) 1909년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가의 빌렌도르프에서 철도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된 유물 중 하나이며, 발굴주변의 지층 분석을 통해 구석기 시대의 유물임이 밝혀졌지만 이 조각상의 의미나 제작 배경 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doopedia(두산백과).

9) 애니미즘 Animism : 종교의 원초적인 형태의 한 가지. 자연계의 모든 사물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나 신앙.



[도판1] 선사미술<빌렌도르프비너스>(빈 자연사 박물관), BC 25000-BC 20000, 돌, 11.1 cm

고대 인체 조각의 시초가 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현재의 시선으로 보기엔 살이 많이 찐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원시적인 생활로 살아가던 인류가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한 출산 능력이 특출한 여성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인체에서 거대한 유방과 임신부임을 나타내는 복부, 과장된 성기를 미루어 보아 생식적인 능력을 표현하고 있으며, 조각이 출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카밀라밀레는

당시 여성은 풍요의 상징이며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이런 소형 여인 ‘페티시상’<sup>10)</sup>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인체표현에서 몇 가지 자연주의적 성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다.<sup>11)</sup>

라고 주장했다.

고대의 조각은 대체적으로 실생활적인 목적으로 부장품의 필요가 많아짐에 따라 조각도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조각은 개인적인 조각 표현보다 기념비적인 부속물

10) 페티시(Fetisch): 포르투갈어. ‘모방하는, 인위적’을 뜻하는 라틴어 ‘faciticus’에서 유래한 단어로, 초자연적인 힘이 내재된 대상을 일컫는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거나 마치면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남을 불행하게 하는 힘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믿었다.

11) 카멜라 밀레, 이대일 역, 『[조각] 한눈에 보는 흥미로운 조각의 역사』, 애경, 2005, p.11.

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했기 때문에 주술적인 맥락이 강조되었고 동적표현에 대한 조각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대의 대모 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초창기의 인체 형상은 이집트로 넘어오면서 형태에 대한 큰 변화를 가지게 된다. 고대 시대가 인간이 자연에 굴복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요구했던 시대였다면, 그 다음시대는 작물과 가축의 강탈과 투쟁이 시작한 시대였다. 그러므로 이집트조각의 특징은 고대와 많이 달라진다.

기원전 약 5000년경에 이집트 · 메소포타미아 · 인도 · 중국 등지에 흐르는 황하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인더스 강, 나일 강 등의 비옥한 유역에서 각기 거대한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집트 예술은 3000년의 긴 역사를 통해 일관된 양식을 지켜왔는데, 이 지속된 양식 속에는 영혼불멸 의식이 깔려있다. 이러한 내세관은 이집트인들의 종교이며 일상의 삶 자체였다. 죽은 자의 세계 역시 현세와 같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영혼이라는 관념(觀念)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고대인들처럼 인간에게는 생명의 정령 또는 혼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죽은 인체를 떠나 따로 삶을 살고 다시 돌아온다는 관념이 생겼고, 그들이 사후의 삶을 위한 영혼이 돌아올 육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관념들로 인해 이집트인들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육체가 필요했으며, 사자(死者)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심하게 된다. 이것은 이집트 예술은 분묘, 건축, 조각, 회화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그들만이 가지는 독창적인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 계기가 된다. E.H.공브리치는

<멘카우라 왕과 왕비>[도판2]는 이집트 조각상 중 최초로 발견된 부부상으로 정면의 법칙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 이 조각상은 표준적 규범을 잘 다루고 있으며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에서 근엄함이 느껴지고 인체 표현 방법에서 절제와 충만함이 동시에 보인다. 또한 왕과 왕비의 인체는 남성미와 여성미를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왕의 절대적‘우의성’과 ‘신성’ 같은 시대적 상황 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엄숙하고 경직되게 표현하였다.<sup>12)</sup>

라고 주장하였고, 김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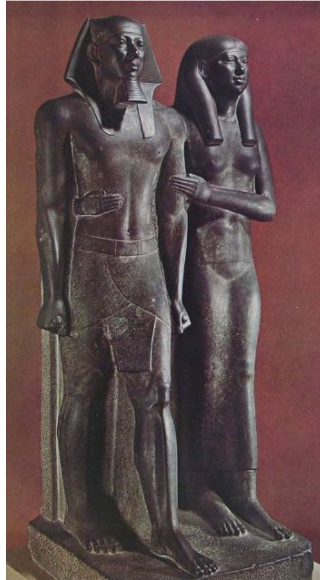
이집트 구상 조각의 특징은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직되고 단순하게 표현

---

12) E.H.공브리치, 최민 역, 『서양미술사』, 열화당, 1978, p.57.

함으로서 인간적인 현실감이 없고 간소화하며 긴장성이 있다. 몇 천년 간 일관되게 지속되어온 공간감의 상실과 운동감이 배제된 곧은 자세는 부동의 형태가 곧 불변의 법칙이라는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다.<sup>13)</sup>

라고 주장하였다.



[도판2] 고대 이집트미술<멘카우라왕과 왕비>(미국 보스턴 미술관), BC 2599년~BC 2571, 돌, 138.4 cm

[도판2]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집트 조각의 오랜 세월에 걸친 부동성은 심리적인 특징보다는 예술적으로 내려오는 질서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술적인 관습은 기술적인 능력 아니면 예술적인 무능력, 즉 시각을 객관적으로 하는데 따르는 곤란한 점에서 생긴 것이다.<sup>14)</sup> 그러나 이집트 예술의 관습은 예술가의 기교적인 면에서 서투름을 나타내 준다고만은 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이집트조각은 사후세계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두고 제작되었고 이것을 기초로 인체표현의 단순성, 경직성, 정면성에 의한 이집트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 그리스와 로마

13) 김석, 『한눈에 보는 조각사』, 지앤씨미디어, 2005, p.41.

14) H.리드, 『예술론』, 경림 출판사, 1978, p.112.

전반적으로 그리스 인체조각은 이집트와 똑같이 신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표현 방법에서도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자연을 고귀하고 거룩함의 근원으로 여겼기에, 당연히 인간의 모습은 이러한 신성을 최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들이 지닌 신인동형(新人同形)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본떠서 상상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신체야말로 찬란한 신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던 데서 생겨나게 된 것이다.<sup>15)</sup>

그리스 조각에서 인체표현은 전체적으로 투박한 원시성에서 탈피하고 정교한 표면으로 이어지는데, 여성적인 우아함과 사실적인 숭고함의 미가 그 특징을 이룬다. 역사가들은 그리스 조각의 형태적인 변화를 그리스의 정치적 자율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발전적인 모델은 18C 계몽주의 소산으로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미술가인 빈켈만 (Johan Joachim Winkelmann) 1717-1768<sup>16)</sup>의 저서들 전반에 걸쳐 그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빈켈만에 따르면 이 시기에 그리스 미술이 찬란히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인 스스로가 지녔던 시민적 자유 의식, 다시 말해서 이들이 외적으로는 침입으로부터 그리고 내적으로는 전체 정치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회 집단이라는 것과 자율적 정치 체제에서 생겨난 특별한 의식을 지녔다는 점이 모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툼 플린은 그의 저서 『조각에 나타난 몸』(2000)에서 빈켈만이

몸체가 건장한 나무에서 훌륭한 가지가 뺏어가듯이, 자유를 통해서 시민 전체 사고가 성숙 된다.<sup>17)</sup>

라고 논평한 것과 같이 시민의식과 더불어 예술가들에게도 시민적 자유 의식이 성장하고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스 인들은 인체를 보는 그대로 자연적 인체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균형과 비례로 나타나는 조화 있는 안정감과 순수 명확한 형식으로 다듬어진 이상적인 조형성을 추구했다. 그리스 조각은 원시 종합적 개념에서 탈피, 인간이 자기를 의식하는 데부터 생긴 자연주의와 이성을 기저로 한 조각을 최초로 시도했다.

15) 톰 플린, 김애현 역, 『조각에 나타난 몸』, 애경, 2000, p.28.

16) 독일의 미학자, 미술사가. 1717년 독일 북부 슈텐탈 출생. 1755년에 『회화 및 조각에 있어서의 그리스 미술품의 모방에 관한 고찰』을 펴내어 고전주의 사상의 선구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1768에 독일 여행 중 트리에스테에서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밖에 주요 저서로는 『고대미술사』가 있다.

17) 톰플린, 김애현 역 『조각에 나타난 몸』, 애경. 2000. pp.36-37.

신화나 종교의 우상 제작에 있어 제작기법이 수(手)작업에 집중되고, 그것이 고정화됨으로써 조각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을 가장 명확한 형태로 나타낸 시기는 인체의 이상미 구현이라는 독립된 장르로서 급속하게 발달한 고대 그리스시대이다. 특히 BC 5세기를 전후로 페리클레스<sup>18)</sup>가 통치하던 때는 고전조각의 이상적 미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 조각은 아르카익기, 클래식기, 헬레니즘기<sup>19)</sup>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그리스조각에서 볼 수 있는 이상적인 미의 원리는 조화(harmonia)와 균제(symmetria)이며, 이 두 가지는 수학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피타고라스의 기하학<sup>20)</sup>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도판3] 폴리클레이토스 <창을 든 청년>, BC 440년경, 대리석, 212cm

- 
- 18) 고대 아테네의 정치적인면의 실제적인 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서 민주정치 전성기를 이끌었다. 페리클레스의 시대는 아테네의 최성기였다. 네이버 지식 백과.
- 19) 그리스어 hellenismos(그리스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는 이미 고대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었다. 근대어인 헬레니즘도 여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대개념으로서 쓰이는 경우에도 연구 분야나 학설에 따라서 다른 시대의 구획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고전 고고학이나 미술사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B.C.323)에서부터 악티움의 전쟁(B.C.31)까지 약 300년간에 걸친 그리스의 사건을 가리킨다. 이 시대의 그리스 문화는 동방을 향해서 광대한 범위로 확대되고, 그 영향은 인더스강 유역에까지 파급되었다(아이 하눔, 탁실라 등).
- 20) 기하학은 영어로 'Geometry'라 하는데 'geo-'는 토지를, '-metry'는 측량을 뜻한다. 고대 이집트인은 홍수로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도 토지를 적절하게 재분배하기 위하여 측량이 필요하였는데 토지 측량에 의한 도형의 연구를 기하학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폴리클레이토스(Polycleitos)<sup>21)</sup>의 <창을 든 청년>[도판3]은 그리스 조각 중 가장 안정된 균형각각을 과시하는 조각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맞춰 인체를 7등신의 영웅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였는데, 상반신과 하반신의 관계를 S자 곡선으로 표현해, 유연한 운동감을 강조한 콘트라포스토(Contrapposto)<sup>22)</sup>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콘트라포스트는 ‘대비된다’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인체 입상에서 인체의 중앙선을 S자형으로 그리는 포즈를 일컫는다. 정면을 향해 꼿꼿하게 서 있는 기원전 6세기 말경의 그리스 아르카익기 인물상과는 다른 이 포즈는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클래식기의 조각상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딱딱하고 엄숙하게 정면을 향해 대칭적 자세로 서 있는 인물조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력은 여전히 조각의 중앙에 미치고 있었으나 몸체의 거의 모든 무게가 다리 한쪽에 몰려 있고 이 경사진 다리가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 골반은 기울어진 다리 쪽에 돌출되어 있고, 다른 다리는 무릎에서 구부러진다. 머리는 반대 방향으로 비스듬히 기울여 중심을 잡는다. 옆에서 보면 버티고 있는 다리가 뒤쪽으로 약간 밀려나 있고 가슴은 위를 떠받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체계를 르네상스 시대에 인체상의 각 부분의 작용과 반작용을 기술하기 위해 콘트라포스토라고 명명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 미술의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서 조상(彫像)의 조형적 가능성을 풍부하게 하였다. 조각가는 이와 같은 자유로운 모습으로 함께 서 있는 새로운 인물을 비롯해 더 큰 긴장감과 극적인 감정을 자아내는 포즈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탐색했다.<sup>23)</sup>

또한 콘트라포스토로 인해 역동적인 표현과 완벽한 비례, 구조를 지닌 이상적인 조각의 절대 규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팔과 다리 관절의 정확한 표현과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흐르는 선을 통해서 폴리클레이토스의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21) 시키온 출생.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고대 아르고스의 하게라이다스(아게라이다스)에게서 배웠고, 나중에 아르고스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전한다. 인체 각부의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수적(數的)으로 산출하여 그것을 《카논 Canon》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저술하였다. 유명한 《도리포로스(창을 든 청년)》 《디아두메노스(승리의 머리띠를 맨 청년)》는 그러한 비례를 기초로 하여 제작된 걸작이다. 인체의 가장 아름다운 비례는 머리가 전신장의 7분의 1이 된다. 오늘날 그의 저술이나 청동상의 원작은 없어지고, 겨우 몇 가지 로마시대의 대리석 모각(模刻)이 남아 있을 뿐이다. 청동조각에서 특출함을 보였고, 그의 작품인 아르고스의 헤라신전의 《헤라상》은 금과 상아로 만들어 진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B.C. 5세기 반 지나서 활약. 주조(鑄造)조각을 특기로 했다고 함.

22) 인체조각상에서 보이는 동적인 유연성과 정적인 균형미로서 S자의 형태를 보여준다. 대개 인체모델링을 할 때 한쪽 발에 체중을 싣고 다른 한쪽 발은 힘을 뺀 자세인데 좌·우가 비대칭의 형태지만 시작적으로 매우 안정감 있는 균형을 보여준다. 이집트나 그리스 초기 아르카익의 조각에 나타나는 정면성의 법칙에서 벗어난 자세로, 그리스 고전 전기 이후 폴리클레토스에 의해 확립되고 발전되었다.

23)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인체의 이상적인 형태의 비례를 찾고자 했던 폴리클레이토스는 『캐논(Canon)』이란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인체의 외형에서 머리가 전신의 약 7분의 1을 차지하는 경우가 최고의 미적 규범을 이루는 비례라고 했다. 그 영향으로 후세에는 8등신이라는 다소 왜곡된 비례감각을 지닌 작품들이 탄생하게 된다. 그들의 이상미의 추구가 극대화됨에 따라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태도 또한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흐르게 된다.<sup>24)</sup>

13세기 말과 14세기의 고딕 미술의 인물상에서 보여지는 과장된 S곡선도 이 이론의 변형이며, 도나텔로Donatello(1382~1466), 베로키오Verrocchio(c.1435~1488), 미켈란젤로Michelangelo(1475~1564) 등의 르네상스 대가들도 콘트라포스토를 도입하였다. 바로크 조각은 균형잡힌 매스를 이용하는 미켈란젤로의 방법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17~18세기 독일 조각에서는 콘트라포스토 형식을 사용하여 마돈나나 성자의 상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였다. 19~20세기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단일한 체계의 콘트라포스토가 지배할 수 없게 되었고 조각가들은 각각 자신에게 맞는 포즈를 선택하고 있다.

BC 7세기부터 나타나는 고전전기 이전의 시기인 고졸기 조각은 대부분 청년상(Kuros)과 소녀상(Core)으로 이집트의 조각 표현양상을 많이 반영한다. 이처럼 그리스는 주변국가의 문화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었지만 하나 된 통일국가를 건성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었다. 여러 국가들 중 지도적인 위치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는데,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다고 믿었고 4년마다 올림피아제전<sup>25)</sup>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적 유대감을 확인하였다. 고졸기 청년상은 올림피아제전에 경기에서 이긴 선수를 위해 신전에 바친 것으로서 아폴로상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조각들은 그리스인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이상향을 형상화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고졸기로부터 약 20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그리스조각은 혁명적이라 할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아크로폴리스에 세운 <파르테논 신전><sup>27)</sup>은 고전조각의 백미이다. 아테나 여신상은 이 신전의 주인으로서 그리스 고전조각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페이디아스<sup>28)</sup>가 목조로 제작하였고 외부를 보석으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작은

24)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엮음, 1999.

25)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BC 776년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제우스(Zeus)를 주신(主神)으로서 숭앙하여 개최된 제전 경기.

26) 유성웅, 『세계조각사』, 한국색채문화사, 1993, p.104. 인용

27) BC 479년에 페르시아인이 파괴해버린 신전이 있던 곳에 아테네인들이 자신들의 여신 아테나에게 바친 도리스식 건축물 최고의 신전작품이다. 조영(造營)은 총감독을 맡는 조각가 페이디아스, 익티노스는 설계, 칼리크라테스는 공사를 맡아 진행되어 BC 447년에 기공하여, BC 438년에 완성하였다. 네이버 지식 백과.

지금 존재하지 않으며, 로마시대에 대리석으로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든 복제품을 통해 원형을 추론해볼 뿐이다. 하지만 고전조각의 원숙미를 신전의 박공과 메토프, 프리즈 쪽에 세운 조각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페이디아스는 아테나 여신상말고도 제우스 신전에 바친 제우스 신상도 만들었는데, 이 조각상작품은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페이디아스의 상상력에서 비롯한 창작에 대해 알려주며, 고전조각의 가장 이상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으로 많이 알려진다.

고전기로부터 헬레니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과도기에 리시포스(Lysippos)<sup>29)</sup>는 팔등신의 <아포시오메노스(Apoxyomenos)><sup>30)</sup>를 통해 영웅적인 비례를 자연주의로 발전시켰고 프락시텔레스(Praxiteles)<sup>31)</sup>, 미론(Myron)<sup>32)</sup> 등의 특출난 조각가들이 수 많은 조각을 남겼다. 알렉산더 이후의 헬레니즘기는 문화의 중심이 아테네 등의 그리스 본토로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페르가몬 등의 도시로 바뀌어 그리스문화가 국제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시기였다. 헬레니즘 조각 특징은 고전조각의 제우스, 아폴로 등의 인간과는 거리가 먼 느낌을 주는 신의 모습보다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니케 등의 인간과 친밀한 느낌의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나, 동세(動勢)도 함께 역동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라오콘군상><sup>33)</sup> [도판4]을 들 수 있다.

28) 피디아스(Phidias)라고도 함.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아테네 인 카르미데스(Charmides)의 아들. B.C. 5세기의 클래식 기의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활약기는 B.C. 460~430년경이다. 페리클레스에 의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부흥 했을 시기에는 총감독을 맡았었고, 파르테논의 페디멘트, 메토프, 프리즈 등의 조각을 제작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29) 고대 그리스 고전 후기(BC 4세기)의 대표적 조각가. 자연을 모범으로 그리스 조각에 처음으로 3차원 공간을 창조했다. 상(像)을 깊이나 운동 속에서 포착하여, 키에 비하여 머리 부분의 비율을 작게 한 새로운 인체 비례(8등신)를 정했다.

30) ‘굽어내는 사람’이란 뜻. 그리스 조각의 주제 중 하나로서 신체에 향유를 바르고 경기를 한 다음 여기에 붙은 흠뻑지를 스텔랭기스(stelngis[그], 금속제나 도기제의 낫과 비슷한 도구)로 굽어내는 선수를 표현한 것임. 그중에서도 리시포스 작(作)인 조상(彫像)이 가장 유명하고 로마 시대의 대리석 조각이 바티칸 미술관에 있다. 네이버 지식 백과.

31) 그리스 고전기의 조각가. B.C. 4세기 거장의 한 사람으로, B.C. 370~330년경에 활약. 소년(소년)이 청년(여성)이 될 때의 부드러운 육체를 우아한 S자형 윤곽 속으로 끌어들이 탁월한 대리석조(彫)법을 구사, 미묘한 살붙임에 성공했다. 전체의 정면성은 B.C. 5세기의 전통을 계승했으나, 힘을 빼고 기대고 있는 모티브에 의해서, 폴리클레이토스 이후의 입각(立脚), 유각(遊脚)에 따른 균형을 더욱 발전시켜놓았다

32)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에레우테라이 출신으로, B.C. 460~430년경 활약했다. 페이디아스나 폴리클레이토스와 거의 같은 시기의 작가로, 청동 조각을 잘 하였으며, 많은 작품이 고대 문헌에 나타나 있으나, 원작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디스코볼로스』, 『아테나와 마르시아스』의 조각에서 보듯, 특히 찰나의 움직임을 잘 표현했다. 고대의 문헌에서 절찬한 『주자(走者) 라다스의 상』이나 『황금의 황소상』 등의 확증있는 조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doopedia(두산백과).

33) 바티칸 피오 클레멘티노 박물관에 있는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 또는 라오콘 군상(Laocoön and His Sons, Laocoön Group)>은 헬레니즘시기의 조각으로 신화 속의 라오콘의 죽음에 대해 표현하였다.



[도판4] 로데스의 아테노도로스<라오콘군상>(바티칸미술관), BC 175-BC 150경, 대리석, 242cm

<라오콘군상>[도판4]은 큰 독사에게 몸이 감겨지며 물린 라오콘과 두 아들은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듯 역동적인 동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역동적인 동세 속에서 보이는 긴장감과 인체의 근육들로부터 두려움과 공포, 고통이 보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라오콘 군상은 조각의 미술사조의 역동적인 인체조각 상에서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조각이며 <사모트라케의 니케>(B.C. 190)[도판5]상과 함께 헬레니즘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역동적 인체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성웅이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은 이제 막 공중에서 내려와 뱃머리에 착지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데, 미처 내리지 않은 날개는 바로 전 시간의 비상을 암시하고, 펄럭이는 옷자락은 해풍을 나타내고 있다.<sup>34)</sup>

라고 주장한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동작의 표현과 계속되는 움직임의 암시는 보다 역동적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34) 유성웅, 『세계조각사』, 한국색채문화사, 1993, p.136.



[도판5] <사모트라케의 니케>(루브르박물관, 파리), B.C.190, 대리석, 328cm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의 오른쪽의 한 발은 앞으로 전진하려는 모습과 앞에서 불어 오는 해풍에 의해 휘날리는 옷자락이, 조각상을 역동적이고도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만든다. 그렇게 때문에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조각 작품들을 언급할 때 그리스 헬레니즘 조각들의 직·간접적인 영향들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헬레니즘 시기에는 고전조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절대적·우주적·초감각적 질서로서의 균제보다 더욱 감각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에우리드미아(eurhythmia)<sup>35)</sup>와 대비(contraposto) 등이 조형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헬레니즘기의 마지막 왕조 마저 로마에 의해 멸망한 후, 수많은 그리스 조각가들은 로마에 흘러들어 로마조각의 형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양식의 모방을 통해 자신들만의 개성을 찾아내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에트루리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의 각 나라별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진취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로마 예술은 인체의 얼굴을 표현하는 초상 조각의 발달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로마인들의 초상에 대한 집착은 예로부터 조상들의 얼굴을 밀납으로 제작하거나 혹은 죽은 조상의 얼굴을 데드 마스크로 만들어내

35) ‘좋은 리듬’이란 뜻으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작품에 부분들이 작품의 전체에 배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는 관습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인들의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미적 관점보다, 로마인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은 실존 인물의 특징과 이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초상 조각분야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는 다르게 매우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로써 그리스문화를 그대로 습득했지만 그것을 로마식으로 바꿈으로써 사실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리스의 많은 조각들은 청동작품으로 제작된 것이었는데 로마인들은 이 작품들을 대리석으로 똑같이 만들었으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조각을 제작하지 않고 장식이나 권력, 부, 교양의 과시란 차원에서 조각을 소유한 것이 그리스인들과는 달랐다. 로마인들의 세속적인 취향을 반영한 것이 초상조각으로서 사실(峽隔)실물에 충실한 조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조각을 통해 아그리파나, 카라칼라, 부르투스, 시저, 세네카 등의 로마인들 생김새를 사진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이다.<sup>36)</sup>

로마의 조각은 역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조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된다.

### 3. 중세와 르네상스 조각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sup>37)</sup>로 옮기고, 기독교를 승인함에 따라 고전조각의 전통은 단절되었는데 초기 기독교 미술과 중세미술 조각상을 포함하여 모든 조형예술을 숭배적인 측면에서 배제하였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적 암시이나 추상적인 개념 표현만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찾아온 중세시대는 역사가들에 의해 그리스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중간지점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다. 약 1000년에 걸친 중세 시대는 흔히 암흑시대라는 달갑지 않은 명칭으로 불려왔다. 중세 미술은 교화를 중심으로 종교화와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나, 색채의 화려함과 세공기술은 크게 발달하였다.

인체 조각에 관해 고대가 인체 조각의 완전함을 신성시된 표현으로 간주 했다면, 중세의 종말론(세상이 끝날 무렵 최후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은 고통 받고 번민하는 혹은 구원 받기를 갈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중세의 미술은 종교에 봉사하고 종교의 교리를 전달하는 역할이 전부였다. 문화적인 다양성은 사라지고 미적 대상

36) 유성웅, 『세계조각사』, 한국색채문화사, 1993, p.154. 인용

37) 지금의 이스탄불로 기원전 660년 그리스시대에 비잔티움(Byzantium)이라고 불리웠고, 서기 330년 콘스탄티누스로 인해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이라고 불리웠다.

이 오로지 신으로 변화하게 된다.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 등을 입체로 표현하는 ‘조각가’라는 개념이 중세에는 없었으며 조각의 분야는 석수나 석공 등 장인의 일로 간주했다. 조각 작품은 인체의 비례, 균형에 관계없이 교리를 목적으로 왜곡되었고 건축물의 일부로서 성서의 인물들을 형상화 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표현이 고딕 양식에 이르러 그리스·로마 조각처럼 독립된 조각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외부 벽면에 국한된 장식 조각에서 벗어나 조각 본래의 입체적 형식을 띤 문설주<sup>38)</sup> 조각이 유행하게 된다.

8세기 이후 중세 암흑기로부터 벗어난 유럽지역에 새로이 문예부흥적 문화가 시작되면서 예술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지만 근본적으로 이 시기는 조합에 들어있는 예술가들이 영주나 교회의 의뢰를 받아 물건을 만드는 방식에 기대고 있었으므로, 실용적인 면에서의 조각이 대부분 나타났고 로마네스크와 고딕시대에도 조각은 주가 없이 건축에 부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선지자나 사도 등의 조각상들을 보면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조토(Giotto di Bondone)의 등장 이후로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피렌체와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문예부흥운동이 시작되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과거와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르네상스’라고 불렀다. 르네상스의 시작은 현실적이지 않고 비개성적인 중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발생되었다. 14세기 이후 중세 유럽 사람들은 교회가 알린 획일적인 지식과 현실성이 결여된 세계관에서 벗어나 새롭고 많은 지식들을 쌓아둠으로써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와 봉건세력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붕괴를 야기했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염원을 촉발시켰다. 아울러 신흥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인과 시민계급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는 휴머니즘으로 발전하였으며 급기야 르네상스의 출현을 이끌었다.<sup>39)</sup>

이 시기에 이르면 예술가들은 엘리트적인 집단으로 대접받게 된다. 고대 전통을 따르는 신사의 교육을 위하여 지적 수련과정과 수학, 변증법<sup>40)</sup>, 문법, 수사학, 철학 등을 통해 예술가는 어떤 사상을 잘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대접받

38) 출입구, 그밖의 개구부의 측면의 기둥 혹은 창의 견주. 벽선, 창문을 달기 위하여 상하 홈대를 세워 댄 기둥 모양의 선틀. 문꼴 좌우에 세우는 선틀.

39) 김석, 『한눈에 보는 조각사』, 지앤씨 미디어, 2005, p.132. 인용

40) 그리스의 동사 “대화하다” 혹은 “강연하다”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기원전 384-322)는 에레아의 제논(Zeno of Elea, 기원전 약490-430)이 변증법을 발견했다고 했으며, 논적(論敵)의 가설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도록 논박하는 제논의 파라독스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게 되고 예술품들은 고도의 창조적 산물 작용을 하는 척도로 가능할 수 없다고 간주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제2의 인체 조각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시대에는 내세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았던 미술과는 달리 이성과 현실에 바탕을 두어 그리스의 이상적인 조각상을 토대로 현실적인 인간 형태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다시 태어나다’ 라는 르네상스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가들은 고대 전통의 재발견을 근원에 두고 해부학, 원근법과 같은 과학적 근거에 접근하여 고대의 이상을 새롭게 부활시켰다. 그리스·로마 예술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인체의 비례, 운동 그리고 자세를 고대의 고전적 관념들을 사용함으로써 영혼의 내적작용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합리적 탐구를 권장하는 전반적인 문화 추세 속에서 그들이 직접 인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고무되었다.

건축가 브루넬레스코(Filippo Brunellesco:1377~1446)<sup>41)</sup>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학문과 예술의 재생을 표방한 피렌체의 젊은 예술가들을 이끌었고, 도나텔로(Donatello:1386?~1466)<sup>42)</sup>는 그 일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르네상스 조각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한 조각가이다. 그는 조각이 건축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지 않는 예술의 영역이자 생기 찬 것으로 만들었다. 도나텔로가 예술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보았다면 기베르티(Gorenzo Ghiberti:1378~1455)<sup>43)</sup>는 2차원적 회화의 원근법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부조작품을 승화하였다. 베로키오(Andrea del Verrocchio:1435~88)<sup>44)</sup>는 레오나르도의 스승이었으며, 르네상스의 거장이었으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조각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르네상스에서 조각의 거장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존재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1475~1564)이며, 미켈란젤로의 인체 조각은 재료를 떠나 작품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표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으로 시스티나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한 후 곧

41) 본명 필립포 디 세르 브루넬레스코(Filippo di Ser Brunellesco). 이탈리아의 건축가, 조각가. 피렌체에서 출생, 사망. 투시도법의 발명자로 르네상스 건축의 창시자. 주로 피렌체에서 활약. 처음 금은세공사사의 도제(徒弟)가 되어 조각가를 뜻했으나, 1401년의 산조반니 예배당의 제2(북측)청동문비 제작 콩쿠르(과제 『이삭의 희생』)에서 기베르티와 최후까지 남아 심사원은 그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고 함

42) 본명 도나토 디 니콜로 디 베토바르디(Donato di Niccolo di Betto Bardi). 이탈리아의 조각가. 피렌체에서 출생, 사망.

43) 이탈리아의 조각가·금공가(金工家). 피렌체(Firenze) 출생. 처음 계부(繼父)로부터 금공을 배우고 1401(1403)년 피렌체의 산 조반니 세례당(洗禮堂)의 《제2 사립짜》 제작자로 당선된 후, 이를 20년 걸려 완성, 크게 알려졌다. 다시 《제3 사립짜》의 주문(注文)을 받고 1425~52년 그 제작에 종사했다. 이것은 그의 대표작으로 후년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천국에의 입구"라고 까지 찬탄케 했다. 건축과 회화에도 종사하고 고대 중세의 미술사(美術史) 및 예술론으로서 귀중한 《코멘타리(Commentarii)》를 지었다.

44) 이탈리아 피렌체의 조각가·화가. 본명은 Andrea di Michele Cione. 처음에는 금공(金工)이었으며 조각을 지망, 도나텔로의 지도를 받고 그를 계승하여 르네상스 초기에 활약하였다.

장 <죽어가는 노예>[도판6]를 만들었다.



[도판6] 미켈란젤로 <죽어가는 노예>(루브르박물관), 1513년경~1514년경, 대리석, 229cm

<죽어가는 노예>[도판6]는 죽어가는 인체의 격렬한 동세를 확고하고 단순하며 안정된 형태로 죽음 앞에 체념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미완성' (non-finito)인 채로 남겨진 것들이 몇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미완성의 미를 표현하여 예술적인 부분으로 개척하였고 매너리즘 조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 역시, 르네상스를 대변하듯이 생명력을 불어넣은 듯한 큼지막한 덩어리감으로 인한 양감과 동세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는 동적인 인체 작품들이 보이지만, 조각의 강렬한 역동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다비드>[도판7]을 보게 되면 고전적인 면과 비고전적인 면의 요소가 병존한다. 영웅적이고 건장한 신체와 자세는 긴장된 근육의 힘까지 역동적이게 표현되어 고전적이거나, 과장된 운동감과 잔뜩 찌푸린 얼굴, 혈관이 드러난 손등 같은 세부묘사는 비고전적인데 이는 르네상스의 불안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도판7] 미켈란젤로<다비드>(빌라 보르게제 박물관, 로마), 1623년~1624년, 대리석, 5.49m

H.W.잭슨은

<다비드>의 동작은 온힘을 다해 돌을 던질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온 몸에는 긴장감과 비장감 또한 느끼게 한다. 그리고 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움직임이 강한 역동적 포즈로 골리앗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 다비드 사이에 공간이 생겨나고, 에너지로 채워진 공간 역시 작품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sup>45)</sup>

라고 주장했다.

르네상스의 주도적 예술가들은 그들의 영감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적인 권위가 타당하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련 없이 내버리는 자세를 취했다. 자연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을 충실하게 묘사하는 것이야 말로 예술가들이 추구할만한 목표인 동시에 작품의 성공 여부를 가능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르네상스의 인체조각은 강렬한 동세로 역동성을 가진 조각이 아닌, 의미하는 부분의 상황에 역동성을 많이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5) H.W.잭슨, 이일 역, 『서양미술사』, 미진사, 1985, pp.188~189.

#### 4. 바로크에서 근대 조각

르네상스 시대의 표현 양식은 매너리즘(Mannerism)의 지배를 받아 예술가들의 표현방식에 퇴보를 가져오게 된다. 시민사회 성립과 상업의 발달에 따른 자본주의 형성의 영향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행동의 변화를 파악하고 수렴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전 세기의 차갑고 조용했던 예술 양식에 비해, 보다 활기찬 바로크 예술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특히 17세기 스페인 미술에서 흔히 쓰이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신비한 환상 혹은 신과 인간의 융합(融合)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제들을 선정하는 형상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지상과 천상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장엄한 광경을 펼쳐 보인다는 점에서, 신비에 대한 경험을 바로크예술의 감수성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크, 로코코 시대로 나누어지는 17세기와 18세기는 회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카라바조, 푸생, 벨라스케스, 루벤스, 렘브란트, 베르메르 등과 같은 바로크 회화의 거장들에 대적할 만한 조각가들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크 조각의 대표적인 조각가로는 미켈란젤로에 필적할 만한 천재 조각가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1598~1680)를 꼽을 수 있다. 그는 화려한 종합적 구성과 극적인 인체의 묘사를 추구하는 한편, 조각에 있어서 회화의 환각을 표현하고자 시도하기도 했으며, 인체조각의 적극적인 동세를 표현함으로써 조각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였다.



[도판8] 잔 로렌초 베르니니<성 테레사의 황홀경>(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 1647년~1652년, 대리석, 등신대

대표적인 그의 작품인 <성 테레사의 황홀경>[도판8]은 인물표정과 인체 의상의 주름 표현 및 무대장치 같은 공간구성을 통해 종교적으로 시선과 마음을 들뜨게 만든다.



[도판9] 잔 로렌초 베르니니 <아폴로와 다프네>(빌라 보르게제 박물관, 로마), 1622년~1625년, 대리석, 243cm

잔 로렌초 베르니니<sup>46)</sup>의 또 다른 작품인<아폴로와 다프네>[도판9]에서 인체의 역동성 표현의 최고의 걸작을 볼 수 있다. 베르니니의 <아폴로와 다프네>는 매우 유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구성과 관능적인 환희가 넘쳐흐르며, 자유자재의 기교가 넘쳐흐르는 기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체의 사실적인 표현과 역동적 움직임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이 솟아나게 한다. 아폴로가 다프네를 잡으려는 순간 월계수 나무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한<sup>47)</sup> 이 대리석은 너무나 섬세하여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며, 회화에서나 표현이 가능한 묘사를 역동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46) 잔 로렌초 베르니니 Gian Lorenzo Bernini (1598-1680): 나폴리 출생에서 로마에서 사망. 이탈리아의 바로크건축, 회화, 조각가이다. 조각가 피에트로 베르니니(Pietro Bernini)의 아들로 1604년 이후 로마로 가서 아버지에게 석조 기법을 배움. 조각작품으로서 빌라 보르게제의 ‘아폴로와 다프네’의 3개의 대리석상과 산타 마리아 델라 빅토리아 성당의 ‘성녀 테레사의 환희’등이 대표작품이라 할 수 있다.

47) 토마치 벌핀치/이윤기 역, 『그리스 로마 신화』, 대원사, 1989.

바로크(Baroque)란 ‘변칙적인, 삐뚤어진, 기이한’이라는 말로, 바로크 시대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세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 르네상스 시대의 낙관주의 사상과 발전, 신선한 충격을 상실하게 된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예술을 형성하고 있던 사상이나 감정은 거의 힘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바로크시대 조각의 인체 작품들은 하나같이 모두 강렬한 포즈와 힘이 느껴지는 인체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으며 미술사조 속에서 역동적인 인체조각이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시기임이 분명하다.

바로크 이후에 나타나는 조각들은 대부분 궁전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 졌기에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장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18세기 사상과 함께 유행했던 미술은 로코코(Rococo)<sup>48)</sup>인데, 프랑스에서 약 30년 동안 발생하여 전개되었던 양식이다. 루이 14세가 죽자 궁정에 소속되어있던 귀족들이 자유롭게 되면서 귀족들의 취미생활과 장식용품이 예술문화의 기준이 된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작품들이 생산되고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로코코 양식이 창조되었다. 로코코란 ‘조약돌’을 뜻하는 ‘로카이유(Rocaille)’에서 나뉘어져 나온 미술용어로 ‘똑같지 않은 모양의 조각꺾데기와 돌을 사용하여 제작한 세공 장식조각’이라는 뜻이다. 대체적으로 로코코 예술에서 보여지는 인체 조각 또한 서정미가 고양되고 선명하고 화려한 작품이 많아졌으며 공예품으로 소형화되기 시작했고 역동적인 이미지보다는 곡선적이고 세련미 넘치게 제작되어 사랑스럽고, 귀여우며, 관능적인 풍부한 감상 위주의 취향이 표현되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면서 다시 고전주의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고전주의라 일컫는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당시 미술작품의 주제는 그리스의 신화나 영웅주의를 즐겨 차용했다.

신고전주의는 고대에 대한 향수와 동 시대의 새로운 이상과 부활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격동적인 사회전반의 분위기는 르네상스 때와 같은 고전에 대한 강력한 재인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방과 복종만을 불러왔다. 신고전주의는 로코코의 반동으로 남성다운 힘을 표현하려 했고, 진지한 생각을 담아내려 했다. 하지만 매끈한 형식과 상상력의 상실이라는 특색만을 갖게 되는데, 신고전주의의 조각은 역동적인 인체조각이 아닌 초상조각이 가장 성장하였으며 기술적으로는 능숙하지만 인위적인 표현과 타성 때문에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며, 인체의 이미지는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잘 다듬어진 표현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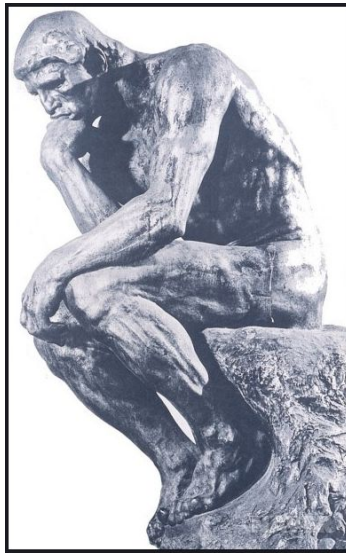
---

48) 로카이유에서 비롯된 말로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장식의 양식. 바로크 양식에 이어 신고전주의보다 앞선 양식으로 당시의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 미술전체에 널리 걸친 양식을 가리킴.

인체에 대한 미학은 지성의 자아 발전과 계몽주의로 표현되면서 인체의 외형성 흥미 위주로 재현하게 되고, 고상한 취미가들이나, 아케데믹한 이론가들에게는 ‘저급’ 형태의 대중적 취향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변화를 거쳐 오며 근대 신체표현은 절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19세기 초반, 중반, 후반에 걸쳐 ‘모더니즘’의 감수성을 일컫는 단면화(單面化)와 분해(分解)의 주체를 가지게 되었고 20세기엔 인체의 일부가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가치를 지니며 추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과거의 조각으로부터 벗어나 진리(眞理)와 미(美)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일관성 때문에 창조성이 저하(低下)되고 개성이 상실되었던 과거의 조각에 대한 도전과 개혁이라는 의식을 심게 된다.

## 5. 현대조각

현대의 조각은 오귀스트 로댕(August Rodin:1840~1917)<sup>49)</sup>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로댕이 조각의 독립성을 처음으로 깨어나게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로댕의 가장 유명한 인체작품으로는 <생각하는 사람>[도판10]이 있는데, 이 작품은 원래 <지옥문>[도판11]의 작품 위쪽 버랑에 걸터앉은 작품으로 유명하다.



[도판 10] 오귀스트로댕<생각하는사람>(로댕미술관), 1880, 브론즈, 186cm

49) 정식 명칭은 Rene-François-Auguste Rodin. 1840년 11월 12일 파리 출생. 프랑스의 조각가. 근대조각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생각하는 사람>[도판10]은 평소에 로댕이 자주 읽었던 시집 『신곡』의 작가인 단테를 표현한 것으로 옛 시인의 눈을 빌려 지옥문의 위에서 지옥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을 재현한 것이다. 작품에서의 인체는 오른 팔꿈치를 왼쪽 무릎에 올린 채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포즈에서 조형적으로 매우 역동적이며 힘이 느껴진다.



[도판11] 오귀스트로댕<지옥문>(로댕미술관), 1880년~1888년, 청동, 390cm

로댕의 <지옥문>[도판11]은 200점이 넘는 인물상이 표현된 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걱정, 욕망과 탄식에 대해 인체의 격렬한 동세를 통해서 지옥에서의 역동적인 몸짓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인체조각은 현대조각의 역동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

로댕의 작품들은 주제나 기능으로부터 작품의 자주성, 내면의 생명력, 작품의 결과에 작품 자체로 재료와 구조, 중력과 관계 중요성 등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각은 장소를 불문하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공간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생존하여 자립하도록 틀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특히 로댕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근대 시민사회의 미의식과 형식인데, 그의 작품들은 초기 그리스 조각들의 소박함과 역동성을 닮았고, 고대 그리스인들의 자연관과 다원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로댕의 뒤로는 부르델(Emile Antoine Bourdelle:1861~1929)<sup>50</sup>)이 있는데, 부르델은 로댕의 감성에 관한 양식을 신고전주의로 확산시켰고 마운(Aristide Maillol:1861~1944)<sup>51</sup>)은 이에 따라 인체조각을 감각적으로 확산시켰다. 현대조각이 드러나던 시기, 조각의 위치가 두터워지는 양상이 조각가가 아닌 화가에 의해 보여진다. 그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도미에(Honore Daumier:1808~79)와 드가(Edgar Degas:1834~1917)<sup>52</sup>), 마티스(Henri Matisse:1869~1954)<sup>53</sup>), 피카소(Pablo Picasso:1881~1973)<sup>54</sup>)가 있다. 하지만 현대조각의 진정한 의미는 조각의 출현 이후 조각의 우위에 있던 재현과 모방의 전통의 흐름을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루마니아 출생의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1876~1957)<sup>55</sup>)는 재현의 전통을 버리고 밀접한 관력을 가진 추상에서 순수기하학적인 추상조각을 만들어 냈다.

예술에 있어서 혁명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초, ‘강철시대’의 미를 살려 실천한 A.G.에펠 이후 철조를 개척한 곤잘레스(Julio Gonzalez:1890~1967)<sup>56</sup>)와 곤잘레스의 뒤를 이어 스미스(David Smith:1906~65)<sup>57</sup>) 역시 철조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마리니(Mario Marini:1901~1980)<sup>58</sup>)는 작품의 공간감과 동세를 표현하였고, 양감과 볼륨

- 
- 50) 프랑스의 조각가. 고전의 재생을 피하여,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고대조각에서 조각미를 탐구하고, 기념비성(性) 속에 신선한 정취를 담은 독자적인 작품을 세웠다.
- 51) 프랑스의 조각가. 처음에는 화가를 지망하여 작품 활동을 하다가 조각으로 전향했다. 모든 주제를 풍만한 여성의 육체의 양감(量感)으로 표현하고 지중해적(地中海的)인 조용한 조화를 이룬 작품을 발표했다.
- 52)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이며 판화가. 4,000여점에 이르는 석판화를 비롯한 방대한 작품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다. 네이버 지식 백과.
- 53) 프랑스의 화가로 그가 이끌었던 야수파(포비슴)운동은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이었다. 그는 원색의 대담한 병렬(並列)을 강조하여 강렬한 개성적 표현을 기도하였다. 보색관계를 교묘히 살린 청결한 색면효과 속에 색의 순도를 높여 확고한 마티스 예술을 구축하여 회화방면의 지침이 되었다.
- 54) 스페인 태생. 입체파화가로 프랑스에서 활동. 프랑스 회화의 영향으로 파리 갔으며, 회화 거장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만들어서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게르니카》, 《아비뇰의 처녀들》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 55) 루마니아의 조각가. 1902년까지 부쿠레슈티(Bucuresti) 미술 학교에서 조각 공부를 하고 1904년 뮌헨(München)을 거쳐 파리에서 다시 미술 학교를 다녔다. 그의 작품은 추상적 경향으로 기울었고 면(面)의 단순화와 아울러 그 상징성은 강렬하였다. 1910년경에는 논 피규라티브(non figurative)의 추상 조각에 도달하여 독자적인 작품을 이루고 대리석·목재·청동(靑銅) 등을 잘 써서 재질(材質)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다. 파리 조각계에서 전위(前衛) 조각의 첨단에 있다. doopedia(두산백과).
- 56) 개념미술가로 여러가지 일상의 사물들과 이미지의 시적인 사용, 관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설치작품들을 제작하였다.
- 57) 데이비드 스미스는 현대 조각을 혁신한 조각가로서, 산업 재료, 특히 용접한 쇠와 철, 돌을 사용해 만든 커다란 규모의 조각 작품으로 유명하다.
- 58) 이탈리아의 조각가. 피스토이아에서 출생, 비아레조에서 사망. 피렌체에서 배움. 초상조각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1930년대 중반부터 말과 기마상의 작품을 계속해서 제작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같은 주제의 판화작품도 수많이 제작. 1940~1970년 밀라노의 브레라 미술학교에서 가르쳤고, 이탈리아 조각계의 젊은 세대의 육성에도 크게 공헌했다. 대표작은 『성체에서의 천사』(1940 베네치아, 구(舊)페기 구겐하임 컬렉션) 등.

이 없는 인체의 뼈대를 통해 조각의 실존주의를 열었던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66)<sup>59)</sup>, 키네틱 조각의 선구자인 칼더(Alexander Calder: 1898~1976)<sup>60)</sup>, 무어(Henri Moore: 1898~1986)<sup>61)</sup>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 같이 입체 조형에 현대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애쓴 조각가들이다. 하지만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sup>62)</sup>의 ‘오브제’<sup>63)</sup> 작업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조각은 정면으로 도전받는다. 뒤샹의 기성품(ready-made)은 조각의 ‘만든다’는 개념을 ‘선택한다’는 행동 개념으로 바꿔놓았고, 그 이후 조각의 수동적인 작업제작의 원리에 기본 조건과 그 전제 역시 바뀌게 되며,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테크놀로지 아트’가 나타나면서 역동적인 인체조각의 개념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

59) 스위스의 조각가, 화가. 보코노베에서 출생, 크루에서 사망. 제네바의 미술학교와 미술공예 학교에서 수학하고, 1922년 파리에 나와 브르테르에서 수학. 큐비즘 풍의 작품을 거쳐, 1930년경 쉬르레알리즘 운동에 참가, 에로틱한 오브제나 『오전 4 시의 궁전』(1933, 뉴욕 현대미술관)과 같은 작품을 발표.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다시 인체를 그려 인간의 실제적인 존재를 압축한 것 같은 가늘고 긴 작품에 전념, 그 독자성이 널리 인정 되었다. 대표작은 『가리키는 남자』(1947, 런던, 테이트 갤러리), 『도시의 광장』(1948~49, 베네치아,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등이 있다. 1962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대상 수상. 유화는 소묘와 초상과 실내 풍경이 대부분이고, 짧은 선의 집적으로 입체감과 음영을 나타냈다.

60) "몬드리안의 작품을 움직이게 하고 싶다"는 고찰로 '움직이는 조각(mobile)'을 만듦으로써 조각을 대좌(臺座)와 양감에서 해방시켰다.

61) 영국의 조각가. 요크셔의 가슬포드에서 광부의 아들로 출생. 1917년 프랑스 전선에서 독가스에 중독됨. 전후 리즈 미술학교에 있다가 런던 왕립미술학교로 가, 1925~1939년 왕립미술학교에서 조각을 가르쳤다. 1933년 신진비평가 리드와 <유닛 원>의 그룹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활약 했다. 제 2차 대전 중, 런던에서 유명한 『방공호 시리즈』의 데생을 하였고, 전후에도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의 모습을 그리고 대상과 그를 포함하는 공간에 대해 새로운 조형관념을 전개했다. doopedia(두산백과).

62) 프랑스의 미술가. 현대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다다이즘에서 초현실주의로의 이행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팝 아트에서 개념 미술에 이르는 다양한 현대 미술사조에 영감을 제공하였다.

63) 「객체·물체」란 뜻. 미술 용어로는 추상적인 「물체」의 모양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미술작품을 말하며, 돌·나무조각·싯조각 등 모든 소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물체가 갖는 일상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초월해서, 의외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새로운 표현 방법이다. 다다이즘(dadaism)이나 초현실주의(surrealisme)등의 예술운동 속에서 클로즈업 되었다. 마르셀 뒤샹(H.R. Marcel Duchamp)이나 만 레이(Man Ray)등이 오브제를 조율하는 예술 세계를 펼친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 백과.



## 제 3 장 본 연구자 작품의 역동성 분석

### 제 1 절 택견 동세의 작품표현의 목적 및 의의

#### 1. 택견 동세의 작품 표현 의의

본 연구자는 조각에 눈을 뜨고부터 인체조각에 경도되었다. 이런 작업에 관한 탐구는 정적인 인체표현보다는 점진적으로 극한의 역동적인 작업에도 관심이 집중되게 만들었다. 택견의 동세가 인체조각으로 승화되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인체의 조각 표현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 했다. 인체 구상 조각 작품에 택견의 기술 동작을 가미하여 표현하게 된 배경은 연구자가 택견 수련과정에서 경험한 품세마다의 동세에서 느껴지는 힘의 변화와 유연성과 강함의 조화로움이 인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움직임 표현에 있어서 역동성을 주제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택견 품세의 순간들을 조각 작품으로 제작는 본 연구자의 작품 활동에서, 인체표현을 통해 미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인체조각의 역동성의 미학에 경도되도록 하고자 했다.

또 다른 표현의의로는 역동적인 동세를 통해 표현된 조각에서 드러나는 생명력과 힘의 발산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다양한 포즈를 조형화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인위적인 포즈보다는 연구자가 수련 중에 실제 경험했던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드러나는 택견의 동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작가 내면의 사상을 조형언어로 표출하는데 그 표현의미가 있는 것이다.

## 2. 택견 동세의 구성

먼저 택견의 동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택견의 품세들의 종류와 그 움직임의 특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기 술	종 류
품밟기	무릎비비기/오금접기/일자(一字)앉기/다리치기/올려당기기/허리재기/발목잡기/두드리기/기지개켜기/털기/목돌리기/숨 고르기
활개짓	활개흔들기/활개휘젓기/활개엇갈리기/활개안굽기/활개밖굽기/활개돌리기/활개내기/활개벌리기/활개잡기
올려재기	안올려재기/무릎올려재기/안돌려재기/밖돌려재기/뱃심내기
발길질	아랫발길질: 판죽(안장다리/밖장다리)/내차기(대죽차기)/정강차기/춧대걸이/엎어치기(장대걸이)/오금치기/썰차기/허벅치기/앉아차기/앉아멤돌리기/발등걸이
	윗발길질: 높은내차기/결치기/복장지르기/높은엎어치기(후려차기)/들어찍기/발따귀/만음다리/두발당상/숫구쳐차기/멤돌려차기/날치기
손질	이마재기/칼잡이/칼재기/털미잡이(안털미잡고 당기기, 안털미잡고 밀기, 밖털미 잡이)/가지치기(안가지치기, 밖가지치기)/어깨멤돌리기/개부르기/손목잡이/회목잡이/오금잡이/어깨치기
태질	판죽, 털미잡이/낙시걸이, 밖가지치기/낙시끌기(안짱걸이), 털걸이, 안가지치기/밖오금걸이, 칼잡이/어깨멤돌리기, 오금밟기/무릎걸이, 어깨치기/마구잡이/외발쌍걸이/활개찍기
힘키우기	품썰밟기/품앉아밟기/또끼뽀/거푸올려재기/숫구치기/돌개질/앉은뱅이/팔굽혀펴기/주먹 쥐기
옛법	.

### 3. 택견 기술의 움직임 및 특징

택견의 동작은 움직임 자체가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고 편안하게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준비 없이도 몸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택견을 수련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도중에 개인의 체력상태에 따라 조금씩 몸을 가다듬는 정도로 하는 택견만의 몇가지 몸 푸는 동작들이 있다.<sup>64)</sup> 이러한 몸 풀기가 보여주는 종류와 택견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배우는 ‘택견의 전부다’ 라고 할 수 있는 택견의 기본적인 발 기술과 모든 기술에 직·간접으로 적용되어 체중의 이동이나 자세, 기술의 강약(強弱)뿐만 아니라 동작의 멋까지 내어주는 역할을 가진 품밟기, 기본적인 손동작을 말하는 활갯짓이 있다. 품밟기로 전체적인 택견의 몸짓과 흐름을 이해하여 터득하였다면 본격적인 힘쌓기를 하는 울려재기, 택견을 ‘백기신통비각술(百技神通飛脚術)’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널리 알려지게 한 택견의 70%이상 차지하는 발 기술의 훌륭한 기법으로 있는 발길질, 활갯짓을 제외한 손으로 하는 나머지 기술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면서 공격해온 상대를 밀거나 견제하는 데 쓰이는 기술이 대부분인 손질, 손질과 발길질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특성을 가진 태질, 택견을 수련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고 맞게끔 하는 방법인 힘 키우기, 상대방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므로 옛날에는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법 등이 있다.

순번	기술구분	특징
1	예법(禮法)	웃어른과 동료간에 인사하는 방법 및 수련 시 갖추어야 할 몸가짐과, 평소에 취해야 할 마음자세 등을 배운다.
2	몸풀기	택견의 동작들은 그 자체가 부드러워 특별한 준비운동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무릎관절, 허리 등 주요 부분을 수련 전에 간단히 풀 수 있도록 몇가지 몸을 푸는 방법이 전해져 내려온다.
3	품밟기	택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으로 일종의 보법(步法,step)과 같은 것으로 택견의 공방원리(攻防原理)를 담고 있으며, 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64) 도기현, 『우리무예 택견』, 동재, p.96.

4	활개짓	택견의 기본적인 팔 동작을 말하는데 상대의 눈을 속이거나 몸의 균형과 흐름을 조절하는데 쓰인다.
5	올려채기	다리를 들어 올려 힘을 재는(쌓는) 우리민족만의 고유한 단전훈련법(뱃심내기)이며 발의 길을 잡아준다.
6	발길질	발길질은 ‘아랫발길질’과 ‘윗발길질’로 구분되며 기법상 발로 차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차고, 걸고, 밀고, 밟는 형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그야말로 ‘백기신통비각술’이라 불려 왔었다.
7	손질	손질은 주로 상대를 잡거나, 밀거나, 걸어 넘기는 유술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손질 단독으로 쓰는 기술보다는 발질의 보조로 많이 활용된다.
8	태(기)질	태질은 유도나 씨름처럼 잡아 넘기는 유술(柔術)을 말하는데 다른 유술처럼 손만 이용하기 보다는 다리와 팔을 동시에 사용하며, 특히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넘기는 기법이 발달되어 있다.
9	힘 키우기	일종의 체력훈련으로 아랫배에 두툼한 뱃심을 키우는 운동을 중심으로 신체 여러 부위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전통적인 체력단련 수련법이 있다.
10	옛법	옛날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하니 사용하지 말라는 일종의 살수(殺手)로 택견의 기술을 다 익혀 어느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기술이다. 즉, 결련택견(경기택견)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한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규칙을 완전히 배제한 싸움 택견이다. 송덕기용의 택견은 다양한 손질과 발길질을 포함하는 싸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65)

65) 도기현, 『우리무예 택견』, 동재, p.41.

## 제 2 절 연구자 작품 분석



[작품2]조현준,<막음다리>, FRP, 혼합재료  
17 × 21 × 37cm, 2012

이 작품은 택견의 막음다리를 하고 있는 인체를 순간적인 묘사로 역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몸체는 절제된 것 같으면서 왼쪽 무릎은 들어서 세우고 있지만, 오른쪽 다리는 쪽 퍼지고, 두상은 왼쪽다리 쪽으로 시선을 돌려 움직임의 부각시킨다. 팔은 양 방향으로 교차하듯이 엇갈리게 뻗어서 자연스러움을 주었고, 좌우에 긴장감을 형성시켜서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그리고 곡선을 사용하여 정적인 움직임보다 동적인 움직임이 살아난다. 들어 올린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를 축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있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에 대한 조형적인 동작의 형태를 균형 있게 잡아주고

있고 작품의 받침 역할을 하고 있는 대가 무게중심의 효과를 주고 있다.

위의 [작품2]사진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택견 동세의 표현에 있어 역동적인 양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체의 직선과 곡선을 많이 표현하였으며, 인체 조각의 복장 주름을 조절하여 나타내 마치 급속히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인체의 사실적인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움직임의 동적인 표현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어 남성적 역동성의 느낌이 살아난다. 전체적인 형태는 역동성을 가진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체의 운동감이 이루는 요소를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나타내어 시각적인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역동성 추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파생 될 수 있는 다양한 인간의 삶의 단면을 표현한다.

본 작품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 언어와 행동을 통한 본능적과 자기방어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했다.



[작품3]조현준<숫구쳐 걸치기>, FRP, 혼합재료  
25 × 28 × 44cm, 2012

[작품3]은 택견 작품의 구상 시 초반에 채택한 사진자료이다. 이 자료를 보면 마치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남성적인 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공중에 뜬 인체가 정면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작품과 주위 공간에서의 거리감을 주어 더욱 활기차면서도 힘이 느껴지게 하였다.

이처럼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택견을 큰 주제로 채택하고 나서 <솟구쳐결치기> 작품을 전반부에 구상하였다. 먼저 남성의 강인하고, 율동적인 힘의 모습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남성적 인체의 긴장감과 강한 힘 그리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종합하여 표현하여 활력 있고, 긴장된 표정을 가진 남성의 이미지를 준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복의 팔락거리는 자연스러움과 힘 있는 뛰어오름을 통해 지면과 인체 조각의 공간감을 나타내어 작품과 작품 감상자와의 사이에 공간감을 살려준다.

[작품3]은 이러한 표현과정 속에서 완성된 작품이다. 인체의 있는 그대로를 살려낸 이 조각은 인체가 가지는 힘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의 감상자는 작품을 보는 자신과 작품과의 거리 공간, 지면에서부터의 작품과의 공간을 통해 역동적인 인체 조각의 표현을 느끼게 한다.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향한 도전적인 인간의 본능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작품4]조현준<발노을대기>, FRP, 혼합재료  
18 × 23 × 32cm, 2012

위의 [작품4]는 택견꾼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택견의 발노을대기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역동적인 동작을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양감과 곡선으로 택견의 기에 부드러움을 최대한 살리고, 절제된 동작을 통해 역동적 공간을 연출한다. [작품4]는 택견꾼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전체적인 형태는 긴장감이 맴도는 형태의 작품이다. 특히, 힘이 느껴지는 역동적 움직임으로 택견을 표현하고, 두상의 강한 시선은 인체와 함께 전체적으로 역동성이 나타난다. 삶의 중용의 의미를 투사한 작품으로 긴장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의 도를 표현했다.

인체의 역동적인 모습은 인체의 오른쪽 다리를 축으로 하여 작품의 팔과 다리 부분



의 움직임이 연속적인 형태로 보이면서 작품의 움직임을 고조시켜나간다. 직접적인 묘사들은 조각적 입체감에 의해 양감와의 조화로운 느낌으로 마치 작품의 동작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작품5]조현준<안낙걸이 칼잡이>, FRP, 혼합재료  
25 × 13 × 34cm, 2012

태권도의 안낙걸이 칼잡이를 시전하는 모습의 이 작품은 직선과 곡선에 의한 동작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역동적 표현의 작품이다. 오른쪽 팔을 상대방의 목에 쪽 뺏어 내지르는 강한 직선의 느낌과 손 끝까지 전해지는 힘, 순간적으로 상대의 오금을 접어 낚아채서 당겨 접는 다리의 역동적 움직임은 한 쪽 다리로 지탱하고 있는 형상으로 인해 역동성이 한층 부각된다. 인체 두상의 표정은 심오한 인상을 주지만 태권꾼의 복장인 한복의 곡선에 의해서 강함과 부드러움 두 가지 모두가 보이도록 하였다.



[작품6]조현준<하단 안짱걸이>, FRP, 혼합재료  
27 × 14 × 21cm, 2012

이 작품은 택견꾼이 택견의 동작 중 하단 안짱걸이를 한 모습을 구체적인 역동적 움직임으로 긴장감 있게 나타내었다. 택견꾼은 오른쪽 다리를 중심으로 하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발목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상체와 함께 왼팔을 앞쪽으로 숙이면서 오른 팔은 길게 뻗어 무게중심을 잡았다. 쪽 내지른 왼쪽 다리의 덩어리는 마치 택견꾼이 상대의 하단을 걸어서 끌어 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발끝의 형태로 하여금 전체적인 형태의 균형을 잡아준다. 쪽 내지른 왼쪽 다리와 축이 되는 접은 오른다리는 작품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힘과 외부적인 공간의 역동성을 한층 살려준다. 그리고 발끝을 향하는 인체 두상의 시선은 역동적인 시선과 긴장감을 복돋아준다. 그리고 인체 조각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상적인 표현이 역동적인 택견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준다.



[작품7]조현준<결치기>, FRP, 혼합재료  
25 × 11 × 37cm, 2012

이 작품은 인체 조각을 통해 역동적 움직임을 택견을 주제로 하여 처음 제작한 작품이다. 이 <결치기> 작품은 택견의 대표적인 역동적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난다. 있는 그대로의 택견꾼을 묘사하여 택견의 결치기 동작처럼 힘이 있고 금방이라도 순간적인 발길질을 하는 것 같다. 인간의 삶은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순간순간의 상황에 대한 순간의 반응들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며, 삶의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찰나의 삶의 미학인 것이다.

길게 사선으로 올려 찬 다리와 자연스러운 택견꾼의 몸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며, 인체의 얼굴을 가린 탈이 강한 내면의 힘을 절제한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역동적인 움직임은 인체의 양감을 가미 시키고, 세세한 묘사의 인체 동작을 표현함으로써 택견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8] 조현준 <물구나무 쌓발차기>, FRP, 혼합재료  
32 × 20 × 29cm, 2012

위의 작품은 남성의 날렵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옆으로 돌면서 물구나무를 하여, 한쪽 팔을 축으로 땅을 짚고 쪽 뺀 왼쪽 다리의 형태가 순간적인 긴장감을 표현한다. 전체적인 몸체도 마치 바로 즉시의 순간을 포착한 것과 같은 운동감이 느껴진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활기찬 움직임을 나타내었고 인체 두상의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긴장감을 나타낸다. 양감표현은 남성의 인체가 가지는 근육질의 표현이 상단부분에서 하단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안정감을 주고 시간의 흐름을 회전하게 하며, 지면과 차고 있는 오른쪽 다리의 사이의 공간에 시선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형태는 순간을 묘사하여 인체가 가지는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어 역동적 움직임이 주가 된 작품의 주제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되어 졌다. 이 작품을 통해 본인

이 앞으로 하고자하는 작품의 형태이며, 조각의 생명력을 극대화 시키고 표현에 있어서는 더 발전되고 너무 직접적인 묘사가 아닌 약간은 단순화시키고자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작품이다.



[작품9]조현준<본때 - 허벅 찢기>, FRP, 혼합재료  
25 × 14 × 31cm, 2012

이 작품은 택견꾼이 우리 민족의 상징인 하회탈을 쓰고 본때뵈기를 하기 전 상대방을 응시하며 몸의 긴장을 푸는 자세의 모습을 안정감 있고 긴장감이 돌도록 표현한 작품이다. 상체는 뒤쪽에 무게중심을 주고 몸을 앞으로 숙였으며 양 손은 양 무릎에 편히 올리고 왼발을 앞으로 디더 살며시 즈려밟고 오른 다리의 무릎을 굽혀 상대방을 도발하는 듯한 모습에서 긴장감을 준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곡선에서 오는 안정적인 느낌과 상대를 응시하는 두상의 시선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작품10]조현준<덜미잡이 회목치기>, FRP, 혼합재료  
24 × 19 × 33cm, 2012

위의 [작품10] 작품은 덜미잡이 회목치기를 하고 있는 동작으로 상체와 하체의 동작이 다른 기술을 하며 오는 다양성과 역동적인 표현에 대한 작품이다. 마치 허리를 ‘확’ 돌리는 듯한 모습이 형상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대의 목에 있는 옷깃과 소매를 잡아끌면서 상대방 발목부근을 걸어 올리며 나동그라지게 하는 기술을 순간 적인 묘사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간적인 동세의 표현은 역동성과 함께 순간성이라는 단어 역시 떠올리게 한다. 이 작품의 포즈를 취한 택견꾼은 상당히 여유를 가지며 겨루기에 임하여 겨루기에서 오는 긴장감을 표정을 통해 안정적인 느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를 우리 삶의 문제나 자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삶을 부드럽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지혜일 것이다.



[작품 11] 조현준 <각시탈-견주기>, FRP, 혼합재료  
51 × 36 × 108cm, 2012

이 인체 작품은 택견이 모티브가 되어 공공매체와 서적에서도 다룬 각시탈을 형상화 하여 택견의 견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여러 매체의 각시탈 중에서 영상매체를 통한 극중 각시탈 모습에 집중하였고, 인체의 동작에서가 아닌 작품의 시선과 복장에서 오는 역동성을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풀이 하였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통소는 강인한 힘과 의지를 보여주고, 각시탈을 쓴 인체의 두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로라를 느낌으로써 관전하는 사람이 시선의 공간 속에서도 긴장감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12]조현준<故송덕기-활개짓>, FRP, 혼합재료  
65 × 50 × 109cm, 2012

위 작품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택견꾼인 故송덕기 선생이 살아생전에 택견을 시전 하던 모습을 인체조각으로 표현하였다. 부드러움 속에서 나오는 카리스마로 모든 이를 압도하는 듯한 시선과, 편안한 자세로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의지가 담긴 활개짓을 하는 故송덕기 선생의 모습은,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 자체로 작품의 주위를 역 동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구체적인 조각 표현에서 오는 분위기가 그 각 작품의 존재에서 드러내는 힘을 표현하고 있다.

연구자가 인체의 단순한 조형미를 추구하는 것 이상의 사상적, 철학적 의미를 작품



의 모토로 삼고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극대화 시키는 시각적 언어로 택견의 품세를 차용했다. 단순한 동세만이 아니라 택견의 정신과 그 정신을 드러내는 움직임의 미학을 융합시켜 조형화 시킨 것이다.

## 제 4 장 결 론

역동적 움직임의 표현은 조각역사에 있어서 표현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인체 조각의 표현은 오랜 고대로부터 행해져 왔으며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구상표현의 발달과 함께 변형되어 현대에 이르는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전의 표현양식들을 탈피해 오면서 다양한 기법과 재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환경 안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되는 단조로운 형식이나 표현 양식의 작은 의미를 떠나 현대에서 인체의 표현은 시대와 문화, 미적 가치 변화를 따라 형태의 왜곡, 변형 등 새로운 조각적 표현으로 시도 되어 왔다. 이러한 인체 표현이 대두되면서 변형과 왜곡을 통한 사회성의 반영은 극단화와 비인간화의 사회현상과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인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특징이 작업에 그대로 이용되는 구상 조형의 성질이 잘 나타난 작품들을 살펴보고 작품의 의미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연결시키는 현대미술들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자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고대의 인체조각에서부터 본인의 작품의 모태가 된 택견에 연관성을 두고 연구하였고, 본 연구자의 인체 조각을 통해서 내적메시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택견의 정신세계와 그 동세를 융합하여 작품화시킨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표현은 작가의 조형적 개념에 의도적 작업방식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여 구상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자의 조각 작품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인체표현은 본인이 본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인체 표현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휴식기를 거쳐 역대의 인체 구상조형 작품들을 감상하고 연구하여 본인의 청구전을 통해 인체조각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역동적인 움직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내재되어 있던 인체 내·외면의 힘이 조형작품으로 표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조각에서의 인체는 단순한 생물학적 측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인간 삶에 의미와 개념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표현된다. 특히,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움직임은 우리 전통 무예인 택견에 스며있는 힘에 대한 외적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의 상징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오늘 날 현대인들의 가슴 속 본성에 불을 지피는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열정은 본 연구자의 역동적 인체 조각 표현의 동작에 나타나게 하였으며, 택견꾼의 택견 동세를 주제로 하여 표

출되었다.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표현을 구체화 시키고, 인체가 가지는 역동적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조형적인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택견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정서에 가장 잘 부합되는 매체이며 택견이 지닌 역동성과 정신성에 의해 작가의 작품 속에 스며드는 내·외적 표현에 적절한 수단으로서 택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동세 또한 연구자의 조형 작업과 일치되어 택견 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동적인 역동성과 정서적 표현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체조각의 역동적 표현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인체조각의 동적표현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조형예술에 있어서 인체의 역동적인 모습의 표현이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은 무한하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인체 조각 작품 활동을 통해 인체 구상표현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고, 나아가 역동적인 인체조각의 표현에 다양한 시도와 독창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인체의 역동적인 표현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도 판 목 차

[도판 1] 선사미술<빌렌도르프비너스>(빈 자연사 박물관) BC 25000~BC 20000, 돌, 11.1 cm .....	9
[도판 2] 고대 이집트미술<멘카우라왕과 왕비>(미국 보스턴 미술관), BC 2599년~BC 2571년, 돌, 138.4 cm .....	11
[도판 3] 폴리클레이토스 <창을 든 청년>BC 440년, 대리석, 212cm .....	13
[도판 4] 로데스의 아테노도로스<라오콘군상>(바티칸미술관)BC 175~BC 150경, 대리석, 242cm .....	17
[도판 5]<사모트라케의 니케>(루브르박물관, 파리), B.C. 190, 대리석 .....	18
[도판 6] 미켈란젤로<죽어가는 노예>(루브르박물관), 1513년경~1514년경, 대리석, 229cm .....	22
[도판 7] 미켈란젤로<다비드>(빌라 보르게제 박물관, 로마), 1623년~1624년, 대리석, 5.49m .....	23
[도판 8] 잔 로렌초 베르니니<성 테레사의 황홀경>(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1647년~1652년, 대리석, 등신대 .....	24
[도판 9] 잔 로렌초 베르니니 <아폴로와 다프네>(빌라 보르게제 박물관, 로마), 1622년~1625년, 대리석, 243cm .....	25
[도판 10] 오귀스트로댕<생각하는사람>(로댕미술관), 1880, 브론즈, 186cm .....	27
[도판 11] 오귀스트로댕<지옥문>(로댕미술관), 1880~1888년, 청동, 186cm .....	28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김나영, 『서양미술의 기원 1880-1914』, 시공사, 1996.
- 김 석, 『한눈에 보는 조각사』, 지앤씨 미디어, 2005.
- 김영만, 『택견겨루기』, 레인보우박스, 2006.
- 김정윤 편저, 『태권』, 브·러터
- 도기현, 『우리무예택견』, 동재, 2007.
- 유성웅, 『세계조각사』, 한국색채문화사, 1993.
- 이용복, 『한국무예택견』, 학민사, 1990.
- 이주현, 『미술로보는 20세기』, 학고재, 1998.
- 한석우, 『입체 조형(이론과 실체)』, 미진사, 1991.
- 툼 플린, 김애현역, 『조각에 나타난 몸』, 애경, 2000
- 토마치 별핀치, 이윤기 역, 『그리스 로마 신화』, 대원사, 1989.
- 카멜라 밀레, 이대일역, 『조각』 한눈에 보는 흥미로운 조각의 역사, 애경, 2005.
- 안느 세프루이, 양혜진 역, 『루브르박물관가이드북』, 국립 박물관연합회, 2006
- H.W.詹슨, 이일 역, 『서양미술사』, 미진사, 1985.
- H.W.詹슨, 김윤법 역, 『미술의 역사』, 삼성출판사, 1984.
- E.H.공브리치, 최민 역, 『서양미술사』, 열화당, 1978.
- H.리드, 『예술론』, 경림출판사, 1978.
- 데이비드 A. 라우어,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애경, 1998.
- Read Herbert, 이희숙 역,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1984.
- Read Herbert, 김진욱 역, 『미술의 역사』, 범조사, 1981.

## <논문>

- 고수영, 『역동적(DYNAMIC) 인체 표현에 관한 조각 작품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논문, 2002.
- 김의웅, 『현대 인체조각표현에서 조형성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논문, 1984.
- 김성옥, 『인체조각에 있어서 미술해부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 논문, 2010.
- 구태은, 『현대조각에 나타나는 원시미술의 반영: 인물조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 논문, 2007.
- 배인효, 『인간 내면을 바탕으로 한 인체 표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석사 논문, 1997.
- 안재현, 『인체 조형 표현의 변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0.
- 오소영, 『인체변형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8.
- 이 균, 『초기 한국 조각의 구미양식 도입에 관한 연구: 해외 유학파의 여인상과 재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0.
- 조영선, 『현대조각에 나타난 원시성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 논문, 2000
- 황영숙, 『조각의 인체 표현에서 변형에 관한 연구: 20세기를 중심으로』, 이화 여자 대학교 석사 논문. 1981.
- 황윤경, 『인체조각의 표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 논문, 2005.

## <국외문헌>

- Jean-Louis Ferrier, 『Art of the 20th Century』 A year -by-year chronicle of painting, architecture, and sculpture, 1999